

석탄발전 인프라, 친환경 발전사업으로 활용방안 모색

-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발전5사는 석탄발전 소재지역의 지자체와 함께 향후 폐지되는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4.29(화) 15시 석탄회관 (서울 종로구)에서 최남호 제2차관 주재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지난 해 12.10일 출범한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는 그간 두 차례('24.12.10, '25.2.21) 논의를 통해 석탄발전 폐지로 인한 고용, 지역경제 등 영향을 최소화하는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전환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날 회의에서 발전5사는 주로 석탄발전의 대규모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하여 수소 생산시설 및 발전시설로 전환하고, 석탄 인프라 시설을 수소·암모니아 인수·저장시설로 전환하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 외에도 석탄발전 송전설비를 활용한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BESS, 태양광 등 다양한 대체 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아직은 사업 구상단계로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대체사업에는 많은 인·허가 등 절차가 수반되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정부, 발전사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최남호 차관은 “발전사의 친환경 대체 발전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석탄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져왔던 발전5사도 좌초자산을 최소화하면서 풍력, 수소 등 친환경 발전사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중인 석탄발전폐지지역지원법과 정부가 준비중인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통해 발전사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안정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전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문양택 (044-203-3880)
	전력산업정책과	담당자	팀 장	정민규 (044-203-3885)
			사무관	안준호 (044-203-3925)

참고**제3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 개요**

- (일시/장소) 4.29(화), 15:00~16:40분(100분) / 석탄회관 4F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지자체, 발전5사, 전문가 등
 - (정부) 산업부 2차관(주재), 전력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장, 탄독위 에너지 전환국장, 지방시대위 지역공간정책과장,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등
 - (지자체) 광역 충남·경남부지사, 기초 태안군수, 당진 부시장, 하동·고성 부군수, 보령시 국장
 - * '30년까지 폐지예정 석탄발전소 소재 광역·기초지자체
 - (공공기관) 동서발전 사장,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부사장
 - (전문가) 부경대 이지웅 교수, 김앤장 이현규 변호사 등
- (세부일정) 대체사업 육성 방향, 자유토론 등

시 간		내 용	비 고
15:00~15:02	2'	■ 개 회	사회자
15:02~15:05	3'	■ 모두발언	산업부 2차관
15:05~15:10	5'	■ 그간의 경과 및 로드맵 추진방향	전력정책관
15:10~15:30	20'	■ 석탄발전 인프라를 활용한 대체사업 육성 방향	발전5사
15:30~16:38	68'	■ 자유토론 및 협력방안 논의	참석자 전체
16:38~16:40	2'	■ 폐회	산업부 2차관